smart is sexy

Orbi

하룻밤에 끝내는 한국사

최민희 지음

Move, or Die.

(2) 여러 나라(초기 국가)

초기 국가는 계륵 같은 존재다. 시험에서 무조건 1번으로 출제되는 선사시대와 달리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자니 2번으로 출제된 적이 드물긴 하지만 있고, 또 공부를 하자니 자잘하게 외울 내용이 많아 성가시다. 아무튼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 가볍게 읽고 넘어가자.

부여는 고조선에 이은 우리 민족의 두 번째 국가로 만주 쑹화 강 유역의 평야 지대에서 성장했다. 부여는 5부족이 연합한 연맹 왕국 체제로 왕은 중앙을 다스렸고, 왕 밑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부족장이 있어 이들이 사출도라고 불리는 행정 구역을 통치했다. 왕권이 여러 가들을 압도할 만큼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흉년이 들면 그 책임을 물어 왕을 폐위하기도 했다. 왕이 죽으면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이 행해졌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형사취수제의 풍습이 있었다. 매년 12월에는 영고라는 제천행사가 열렸고, 전쟁이 일어나면 소를 죽인 뒤 그 굽으로 길흉을 점쳤다.

부여는 1세기 초에 왕호를 사용하고 중국의 한과 교류하며 발전했다. 그러나 3세기 말에 이르러 선비족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되고, 4세기에는 전연의 침입으로 왕이 포로가 되는 최악의 위기를 겪게 된 이후 국력이 쇠퇴하더니 결국 고구려에 의해 멸망했다(494). 부여는 비록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서 멸망했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세력이 부여의 후예를 자처하는 등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주몽에 의해 건국됐다(기원전 37). 처음 자리를 잡은 곳은 압록강 유역의 졸본 지방이었는데 이곳은 산간 지역으로 농토가 적어 농사를 지어도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다. 결국 고구려는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건국 초기부터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쳤고, 압록강변의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이주한 세력이 건국한 나라답게 부여와 비슷한 구석이 많다. 부여처럼 5부족이 연합한 연맹 왕국이었고 왕 밑에 상가, 고추가 등의 대가가 있어 이들이 참여하는 제가회의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고구려의 제가회의와 같은 성격의 귀족회의로는 백제의 정사암회의, 신라의 화백회의가 있다). 또한 부여처럼 형사취수제의 풍습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일화가 "삼국사기"에 전한다. 뒤에서 자세히 배우게 될 고국천왕과 그의 왕비 우씨에 관한 이야기다.

고국천왕이 어느 날 후사 없이 사망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에 왕위는 고국천왕의 남동생 중 한 명에게 돌아가야 했다. 고국천왕에게는 발기, 연우, 계수 등의 여러 동생들이 있었는데 발기가 바로 아래 동생이었다. 고국천왕의 왕비 우씨는 남편이 죽자 이를 밝히지 않고 은밀하게 궁을 빠져 나와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발기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발기는 늦은 밤 자신을 찾아온 형수를 경계하며 매몰차게 대했고, 이에 마음이 상한 우씨는 그에게 왕의 죽음을 숨긴 채 이번에는 그 아래 동생인 연우의 집으로 향했다. 발기와 달리 연우는 우씨를 극진히 맞이했고 연회까지 열었다. 연우가 우씨에게

대접하려고 직접 고기를 썰다가 칼에 손가락이 베이기까지 하자 우씨는 손수 자신의 치마끈을 풀어 연우의 다친 손가락을 싸맸다. 연우의 호의적인 태도에 우씨는 마음을 고쳐먹고 왕이 죽었다는 것을 밝힌 뒤 그를 다음 왕으로 추대하니 이가 바로 산상왕이었다. 그 다음 일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하겠지만 형사취수제의 풍습에 따라 산상왕은 형수인 우씨를 왕비로 맞이했다.

그렇다면 발기는 어떻게 됐을까? 마땅히 자신에게 와야 할 왕위가 우씨의 농간으로 동생 연우에게 가버리자 이성을 상실한 발기는 요동태수 공손탁에게 3만 군사를 빌려 고구려를 침공했다. 그러나 발기의 군대는 막내 동생 계수가 이끄는 고구려군에게 가로 막혀 패하고, 아무리 왕이 되고 싶어도 그렇지 외세까지 끌어들여 자신의 나라를 침략할 수가 있느냐는 계수의 질책에 발기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 이 고사에서 유래된 사자성어가 바로 '발기부전'이다. 중요한 순간에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난처해졌을 때 쓰이는 표현이니 종종 사용해보자. 비슷한 뜻을 가진 사자성어로는 '임포텐스'가 있다(혹시나 싶어 하는 말인데 진짜로 믿으면 곤란하다).

그렇다면 부여와 고구려에서는 왜 형사취수제의 풍습이 있었을까? 우리 조상님들의 형수 사랑이 남달라서? 당연히 아니다(연우와 우씨처럼 의심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형사취수제가 행해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형이 죽으면 형수와 그 자녀, 그리고 형의 재산이 남는데 형수가 친정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남자에게 새로 시집을 가기라도 하면

형의 가문에서는 이들을 모두 잃는 셈이 된다. 따라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면서 가족 공동체의 재산과 노동력을 보호했다.

한편, 북방 유목 민족인 흉노는 우리보다 한 수 위였는데 여기는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제외한 아버지의 부인을 아내로 삼았다. 이 관습을 수계혼이라고 한다. 수계혼과 관련하여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중국 4대 미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왕소군이다. 왕소군은 한 원제 때의 궁녀였는데 이 무렵 흉노의 선우(왕) 호한야가 한에게 궁녀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다. 한의 개국 초기부터 서로 죽일 듯이 싸워댔던 한과 흉노는 이즈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궁녀의 수가 워낙 많아 황제가 궁녀의 초상화를 보고 동침할 상대를 골랐는데, 궁녀들은 황제의 눈에 들 요량으로 초상화를 그리는 화공에게 뇌물을 주고 실물보다 예쁘게 그려 달라는 청탁을 많이 했다. 그런데 당시 궁녀였던 왕소군은 워낙 미인인 데다 뇌물을 줄 만큼 돈도 없었던 터라 화공에게 잘 보이기 위한 뇌물을 주지 않았고, 이에 빈정이 상한 화공 모연수는 그녀의 초상화를 엉망으로 그렸다. 이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원제는 초상화만 보고 왕소군을 호한야에게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그녀가 흉노로 떠나는 날 처음 실물을 보고 너무 예쁜 나머지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미 보내기로 결정을 내린 후였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었고, 결국 원제는 눈물을 머금고 왕소군을 흉노로 보내야만 했다. 당연하게도 불똥은 왕소군의 초상화를 그린 모연수에게 튀어 결국 그는 목이 달아났다.

절세미녀를 선물 받은 호한야는 뛸 듯이 기뻐했다. 왕소군은 호한

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잘 살았는데 시간이 흘러 호한야가 죽자 한의 황제에게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무리 대접이 융숭하고 신분이 고귀해져도 언어도 풍습도 낯선 남의 나라에서 살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때 한의 황제는 원제의 아들인 성제였는데 성제는 왕소군에게 돌아오지 말고 흉노의 풍습에 따르라는 명을 내렸다. 이 흉노의 풍습이 바로 수계혼으로 왕소군은 결국 호한야의 아들인 복주루약제 선우에게 다시 시집을 가 딸 2명을 더 낳고 죽을 때까지 흉노 땅에서 살았다.

고구려에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남자가 일정 기간 동안 처가에서 살다가 본가로 돌아가는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서옥제는 데릴사위제로 흔히 남자가 결혼할 때 장가간다고 하는데 이 표현이 서옥제에서 유래했다는 견해가 있다. 장가는 장인의 집(처가)을 뜻하는데 따라서 장가간다는 말은 곧 처가로 들어가서 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구려는 건국 시조인 주몽과 그 어머니 유화부인을 조상신으로 섬겼다. 매년 10월에는 동맹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고 왕과 신하들이 국동대혈에 모여 제사를 지냈다.

옥저와 동예는 함경도와 강원도 북부에 위치한 소국으로 왕이 없고 대신 읍군, 삼로라고 하는 군장이 있어 자신의 읍락을 통치했다.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경제적으로 윤택했으나 이웃나라 고구려에 수탈당하면서 성장하지 못하다가 결국 고구려에 병합됐다. 옥저에는 고구려와 정반대로 며느리가 될 여자아이를 남자 집에서 데려다 키운 후 장성하면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예물을 주고 결혼하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다. 사람이 죽으면 일

단 가매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 뼈만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커다란 목곽에 넣는 매장 풍습도 있었다.

고구려의 서옥제와 옥저의 민며느리제 중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혼인 풍습은 무엇일까? 정답은 서옥제, 바로 데릴사위제다(정확한 명칭은 남귀여가혼). 이 남귀여가혼은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혼인 풍습이었는데,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이다. 이이가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강릉 오죽헌은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친정이었다. 신사임당은 강릉에서 태어나 한양 사람 이원수와 결혼하고도 한양에서 사는 대신 강릉에서 살며 이이를 낳고 길렀다.

재미있는 것은 신사임당의 아버지 신명화도 강릉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신명화 역시 한양 출신이었는데 강릉에 사는 이사온의 딸과 결혼한 것을 계기로 강릉에 정착하게 됐다. 그리고 신사임당의 외조부인 이사온 또한 강릉 출신이 아니었다(대체 강릉 출신은 언제쯤 나오는 거야?). 용인 이씨인 이사온은 강릉 최씨인 최응현의 딸과 결혼한 뒤 처가가 있는 강릉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 처조부인 최치운이 지은 오죽헌을 물려받았다. 한마디로 강릉은 신사임당의 외조모인 강릉 최씨의 고향이었고, 그 집안에 장가든 남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강릉에서 처가살이를 했다.

이렇게 고대부터 이어져 온 혼인 풍습인 남귀여가혼은 조선 건국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친영제를 적극 권장하면서 그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친영제는 남귀여가혼의 반대되는 혼인 예법으로 결혼식과 결혼 이후의 살림살이 모두 신랑 집에서 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주자가 정리한 성리학의 예법의장서인 "주자가례"를 따른 것으로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는 개국 초기부터 모든 혼인을 친영제로 치르게 하도록 했다. 왕실에서도 모범을 보여 세종은 여동생 숙순옹주의 결혼을 친영제로 시행했다.

그러나 천 년 넘게 이어진 풍습이 쉽게 바뀔 리 없었다. 당장 주자의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사대부 성리학자들도 혼인에 있어서만큼은 친영제 대신 기존의 남귀여가혼을 고수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친영제를 포기하지 않았고, 혼례는 신부 집에서 치르되 혼인 이후에는 처가에서 살지 않고 신랑 집에서 살게 하는 반친영제와 같은 절충안을 끊임없이 만들어냈다. 결국 조선 후기에 이르면 친영제가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때부터 소위 시집살이가 시작된다.

동예는 단궁(활), 과하마(말), 반어피(바다표범 가죽) 등의 특산물이 유명했는데 이것들을 고구려에 공물로 바쳤다. 씨족 사회의 전통이 남아 있어 족외혼을 엄격하게 지켰고, 다른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았다. 만약 침범하면 노비나 소, 말로 배상하게 했는데 이를 책화라고 한다. 매년 10월에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한반도 남부에는 일찍부터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진이 존재했다. 고조선이 멸망하자 그 유이민들이 대거 진으로 남하하면서 발달된 철기 문화가 유입됐고 그 결과 마한, 변한, 진한의 삼한이 등장했다. 삼한에는 수십여 개의 소국이 존재했는데 그중 마한의 목지국이 가장 강력하여 목지국의 지배자가 삼한 전체를 영도했다. 삼한에

는 정치적 지배자인 신지, 읍차와 종교적 지배자인 천군이 있었다. 천군은 신성 지역인 소도를 다스리며 하늘에 대한 제사를 주관했는데 소도에는 신지, 읍차의 세력이 미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삼한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사회였음을 알 수 있다.

비옥한 평야 지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철제 농기구의 보급으로 삼한에서는 벼농사를 많이 지었다. 매해 씨를 뿌린 5월에는 수릿날, 수확을 마친 10월에는 계절제를 열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변한에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화폐처럼 쓰였고 낙랑군, 왜 등에 수출하기도 했다. 철기 문화의 발달은 삼한의 성장을 촉진시켜 다수의 강력한 정치 세력이 등장했는데 마한의 백제국과 변한의 구야국, 진한의 사로국이 바로 그들이었다. 이들이 더욱 발전하여 백제국은 백제를, 구야국은 가야 연맹을, 사로국은 신라를 형성했다.